

일본에서 산림경영과 인증·라벨링제도의 동향(상)

白 乙 善 / 임업연구원, 임업제도연구실장

1. 서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양립하고,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념이 대두된 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대응들이 전개되고 있다.

인증·라벨링제도는 일정한 기준, 규격 등을 만족시키는 산림경영이 실행되고 있는 산림 혹은 그 조직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에 라벨 등을 첨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적인 구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산림관리협의회(FSC)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두 조직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산림조합 등이 인증 취득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증·라벨링제도는 적절한 산림정비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산림의 보속배양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계획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산림정비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계약제도를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목재인 증제의 동향」(임업연구원 연구자료 156호, 1999)이 발간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증·라벨링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일본현지출장시 세미나 참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청취내용들을 토대로, 인증제도를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임산업체, 산주조직들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ISO 14001 인증취득

(1) ISO의 개념과 적용분야

최근 국제표준화나 ISO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의 약자이다. ISO는 방사성 동위원소(isolate)라는 뜻 이외에도 공통으로 한다던가, 같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ISO규격으로서는 비상구의 표시, 필름의 감도, 신용카드의 규격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건규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품질관리 규격, 환경매니지먼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세계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규격을 만들자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처음에는 전기나 기계, 수출 산업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종이펄프 산업, 목재·목제품제조업 및 지방자치단체

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기업이 사용하는 자재도 될 수 있는 한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세계적 흐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기준지표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는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등에서 추진했지만,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대응조치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세계에 7개의 기준·지표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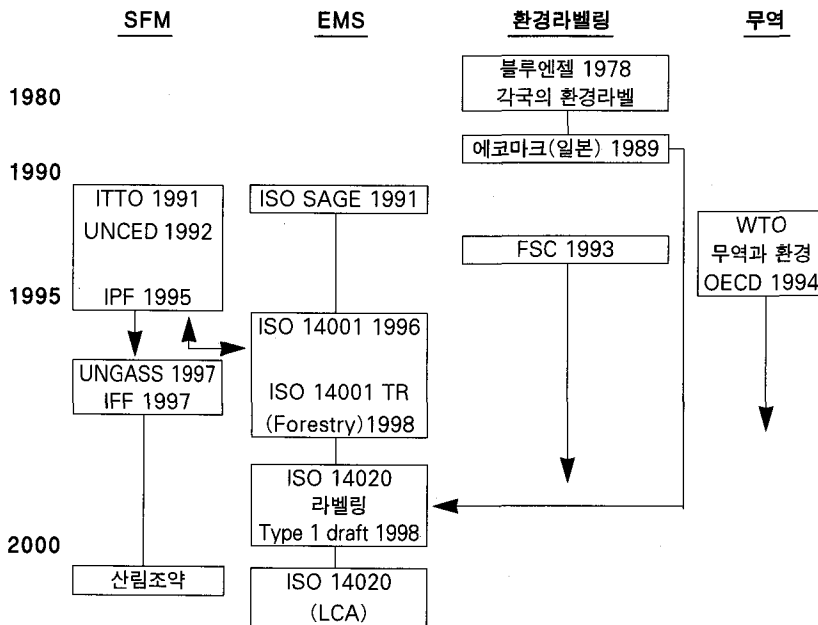


그림1. SFM과 환경매니지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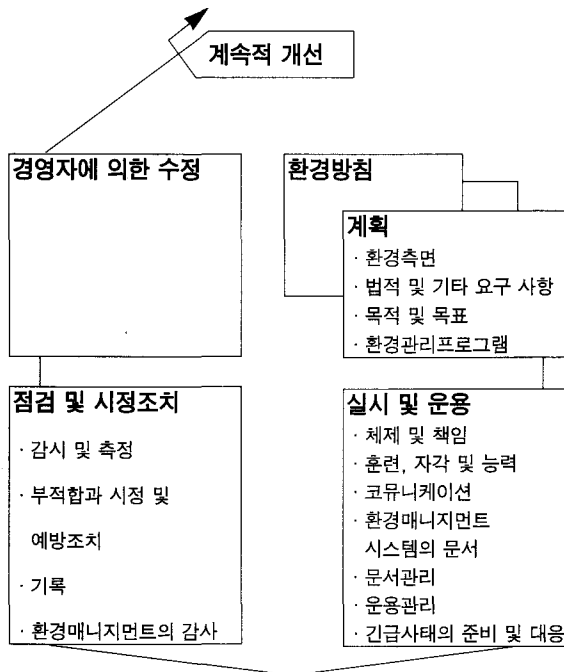
그 중 하나는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흐름이다. (그림 1)의 상단에 EMS라고 적힌 부분이 ISO의 움직임이며, 현재는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그림 2)이 이미 발효되어 산업에서는 기술보고서「산림경영조직이

ISO14001(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규격)을 적용할 경우의 參考資料」로서 1998년12월15일에 발행되었으며, 금후 산림경영분야에서 ISO 14001의 취득이 진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2.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념

4) ISO 14001의 실시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가 기업방침(환경방침)을 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 계획(Plan)을 수립, 실행(Do)하고, 계획에 입각하여 점검 및 시정

(Check)하고,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금 방침이나 계획을 수정(Act)하는 시스템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실시한다(PDCA cycle). 항상 시스템을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모델

출전 :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일본규격협회

또 다른 하나는 라벨링이라는 흐름이다. 일본에서도 에코마크라는 것이 있지만,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라벨링이 있다. 이 라벨링에 대해서는 각국의 생각이 다르면 무역측면에서도 대단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세계적으로 통일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ISO 라벨링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ISO는 매니지먼트시스템과 라벨링이 별도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크게 보면 하나의 흐름중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이다. WTO의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을 이유로 한 비관세장벽, 즉 관세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OECD보고 등에서는, 목재거래에 관해 산림감소라는 문제를 무역제한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결론지우고 있다.

다음으로 ISO 14001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품질향상의 수법으로서 PDCA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나 조직의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환경방침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계획 P에 해당한다. 그리고 D로 표시되는 실시·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체크 C에 해당된다. 그런 후 경영자와 조직은 조직 책임자에 의한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액션 A에 해당된다.

그렇게 PDCA순을 따라 계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ISO 14001 규격은, 17항목에 대하여 각각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물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의 환경측면이다. 조직이나 기업이 활동할 때는 아무리 주의하여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환경에 영향이 없는 활동은 없다. 그것을 우선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할 경우 건축의 전공정을 검토하고, 어떠한 공정이 어떠한 영향을 환경에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에서부터 각종 공정을 하나 하나씩 분석한다. 그런 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지만, 그 때 중요한 점은 그것들을 매뉴얼이나 규정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ISO 14001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모든 분야, 모든 나라나 사업에 적용하므로, 각각의 실제목표 예를 들면 CO2의 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그림 3). 이것은 ISO의 산림 기술보고서에 나와있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6개 기준이 있다. 이것은 보속임업의 개념보다도 광의의 개념이다. 보속임업의 경우에는, 주로 목재생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은, 산림의

다면적기능을 어떻게 발휘시킬 것인가, 그리고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장래세대에 까지 그

것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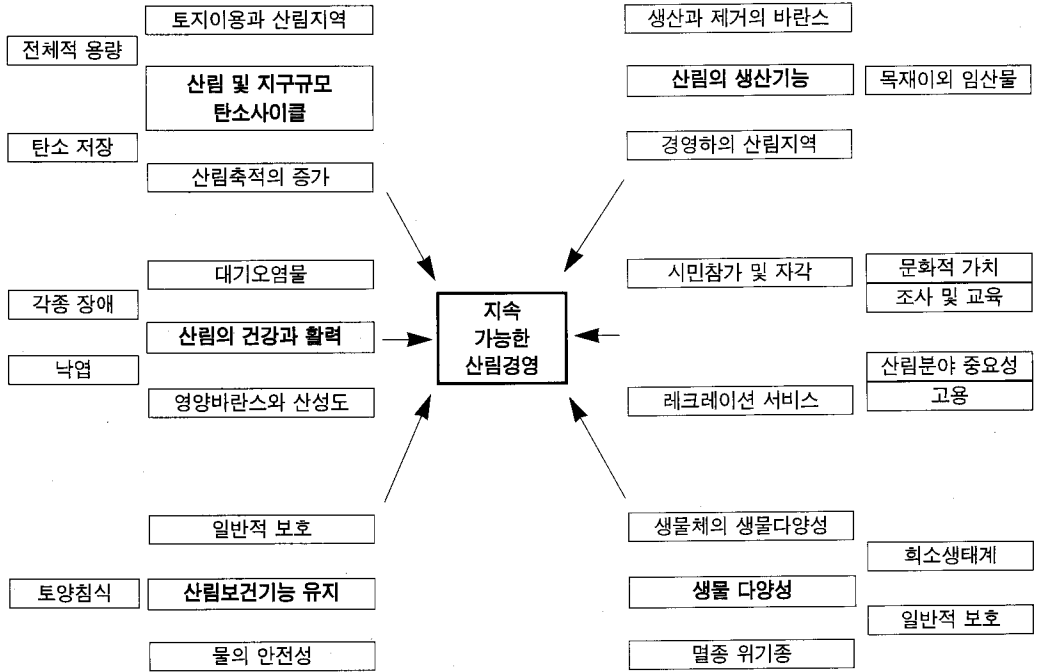


그림 3. SFM의 전유범 기준 및 지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생산기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 생물의 다양성, 산림의 보호기능, 산림의 건강활력, 산림자원 및 지구규모의 탄소사이클, CO2의 흡수도 중요한 관점이 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 중에서, 공중의 참가와 자각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해 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보고서에서는 환경방침을 만들 때에 될 수 있는 한 조직내부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듣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것들은 앞으로의 정보공개 문제와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ISO 14001의 산림분야 기술보고서의 드래프트판에 나와 있는 그림이며, 여기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ISO의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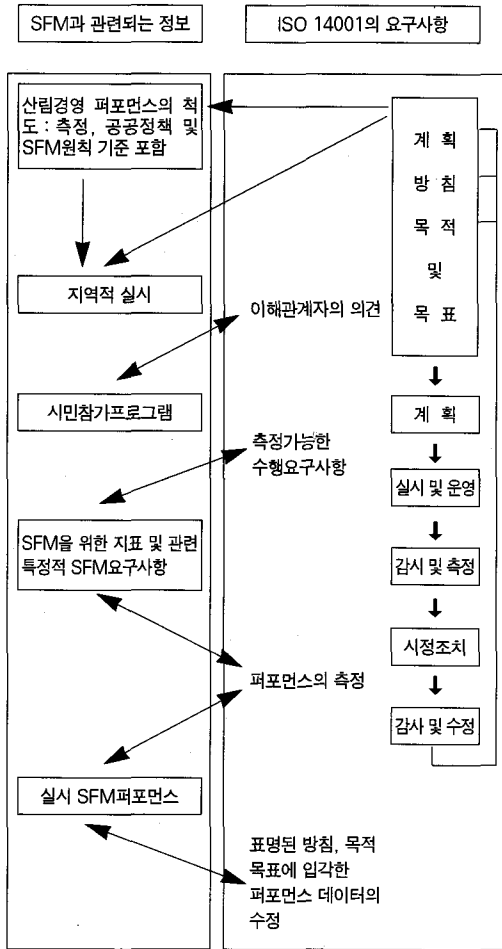


그림 4. ISO 14001의 SFM원칙 및 정부간 기준·지표의 적용

이 그림은, ISO 14001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산림경영조직이 고려할 수 있는 SFM(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원칙, 기준·지표를 위시한 산림경영방침자료와의 가능한 연결을 도시화한 것이다. 우측 박스는, ISO

14001의 기본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좌측 박스는 SFM의 개념과 관련되는 몇 개의 중요한 요소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이들 SFM의 요소와 ISO 14001 EMS 요소 및 관련되는 요구사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술보고서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각각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다(표1).

표1. 기술보고서 드래프트판의 목차

목 차	
서 문	쪽 수
1. 적용범위	
2. 용어 및 정의	
3. ISO 14000시리즈 규격	
4. 산림경영조직을 위한 참고자료	
5. SFM의 원칙, 정부간 기준·지표와 산림경영조직의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과의 관계	
6. 소규모 산림소유 및 사업	
7. 산림경영조직의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의 자기 선언, 제2자에 의한 감사, 제3자에 의한 인증	
8. 커뮤니케이션	
부속서A (참고) 그 외 ISO14000시리즈 규격 및 관련문서의 개요	
부속서B (참고) SFM에 대한 기술적 참고사례	
부속서C (참고) 케이스 스타디의 도입	
부속서D (참고) 브라질의 케이스스타디 - 유카리조림지의 ISO14001EMS의 실시	
부속서E (참고) 남아프리카의 케이스스타디 -	

어느 인공림의 ISO14001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실시

부속서F (참고) 소규모 산림소유 및 사업의 조직

부속서G (참고) 핀랜드의 케이스스타디 - 핀랜
드의 소규모 가족산림을 위한
ISO 14001규격에 의한 환경매
니지먼트 시스템

부속서H (참고) 프랑스의 케이스스타디 - 공적
기관의 지도하에, 지역차원에서
구축되고 실시된 ISO14001EMS
를 사용한 사유림의 산림경영인증

부속서I (참고) 오스트리아의 케이스스타디 -
산림소유자의 계획에 의한 어프
로치 - 개별 산림소유자에 의해
실시되는 EMS 모델을 구축하
기 위한 산림소유자간 공동행동

그림 1 ISO14001 : 1996년의 환경 매니지먼
트시스템 모델

그림 2 SFM의 전유럽 기준·지표

그림 3 ISO14001 틀내의 SFM원칙 및 정부
간 기준·지표의 적용

그림 4 목적 및 목표설정에 사용된 기준

그림G.1 Kuusomo 산림경영협회에서의 산림
경영 및 목재조달

그림H.1 핀랜드의 소규모 임업을 위한
ISO14001규격에 의한 환경매니지먼
트 시스템

그림 I.1 프랑스의 케이스스타디

표B.1 SFM의 주도(Initiatives)의 기준·지
표를 위한 정부간 프로세스의 개요 및
참가국

표B.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정부간
기준의 개요

표D.1 영향의 크기

표D.2 영향의 중대성

표D.3 중요도 지수의 계산사례

표D.4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
된 기준

표E.1 환경방침의 케이스스타디 사례

표E.2 환경방침의 선언사례(목적 및 목적에
대해서는 표E.3 참조)

표E.3 표E.2에서 제시한 사례의 목적 및 목표

표E.4 수순의 사례

중요한 것은 제5장이며, 여기에서는 ISO 14001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17항목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술보고서는 ISO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세한 해설은 없다. 그 대신에 부속서라는 곳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산림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핀랜드의 구사모 산림협동조합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스미토모(住友)임업”의 산림부에서는 1998년12월에 ISO 14001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1999년 3월에는 내부감사를, 5월의 예비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 다음호에 계속 >